

##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조준호	학과(전공)	전산학부
파견대학	난양이공대	파견(참여)기간	2022.06.29 - 2022.07.30
파견 프로그램명	GEM Trailblazer Summer		

### 1. 출국 전 준비사항

#### A. 프로그램 지원과정

학교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고, 추후 장기 교환학생이나 유학에 대비하여 외국에서의 생활이나 외국어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이메일로 안내 받은 바에 따라 파견 대학에서 마련한 포탈에 들어가 관련 안내사항들을 읽으며 준비했습니다.

####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에 따라 학생 비자(Student's Pass)를 발급받았습니다. IC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완료되었다는 증명서(IPA Letter, 1회용 비자 역할도 겸함)를 뽑아 입국 시 제시하면 됩니다.(다만 제 경우에는 입국 시 서류를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eForm16라는 각종 인적사항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30SGD를 지불하면 며칠 뒤 IPA Lett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해서 업로드하고 발행비 및 비자 비용 90SGD를 지불하면 며칠 뒤 IPA Letter를 받고 추후 싱가포르에 입국해서 실물 카드 비자를 수령하러 갈 날짜를 e-Appointment라는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합해서 총 비용은 120SGD, 기간은 1~2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여유 있게 신청을 하지 않으면 e-Appointment 시에 예약이 다 차 있어 상당히 늦게 실물 카드를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입국 한 달쯤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견대학에서 SOLAR Form이라는 것을 주면 그걸 이용해서 ICA 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위의 모든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늦게 신청한지라 한국 귀국 3일쯤 전이 가장 빠른 날짜라, 일단 신청해 놓고 실물 카드를 받으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1달 정도 단기 체류고 다른 나라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면 딱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아시아나 항공 왕복 직항 이코노미 티켓으로 구매했고 90~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간단하게 삼성화재에서 해외여행용 보험으로 가입했고 약 2만원 나왔습니다.

####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지원 과정에서 희망하는 과목을 지정해서 신청하는 단기 파견 프로그램이라 따로 수강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연구 참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니다.

##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수업은 모두 ARC라고 하는, 교내 식사의 대부분을 해결한 North Spine이라는 곳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니다. 강의실은 4~5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책상이 여러 개 분포되어 있고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벽면 곳곳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

언어 수업이 중점적이었고, 동남아시아의 중국 사회에 대한 문화 수업이 일부(6시간 수업 + 주변 문화 지 및 박물관 탐방 1일) 포함되어 있었습니니다. 강의자가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일반적인 교수법이었으며, 문화 수업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관련 내용을 서술하는 레포트(800~1000 단어)를 작성하는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언어 수업에서 배운 바를 구술 시험, 지필 시험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니다.

<3D 프린팅>

대부분은 일반적인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하루는 외부 기업(Cellink)에서 와서, 하루는 NTU 연구실에서 관련 기술을 견학할 수 있는 Workshop 시간이 있었습니니다. 3D 모델링을 실습해 보기도 하였습니니다. 시험은 2주차에 퀴즈가 하나, 마지막에 기말 시험이 있었으며 발표도 있었습니니다.

NTU 측에서의 강의 평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업이었습니니다. 다만 싱가포르 특유의 영어 억양에 익숙하지 않는데 교수자가 싱글리시 사용자일 경우 수업 내용을 알아듣지 못 할 수 있습니니다.

## 3. 비용

A. 기숙사 (숙박)

등록비와 관리비(기숙사비 등) 총 포함하여 한화 약 90만원 정도 지불하였습니니다.

B. 식사

한국과 식비는 그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내에서 식사의 대부분을 해결한 North Spine에서 식사를 해결할 경우 만원 안쪽에서 식사와 간단한 음료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니다. Canteen이라는 기숙사에 딸린 작은 푸드 코트 같은 곳도 있는데 그곳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5천원 이내?) 그러나 위생상태가 영 의심스러워서 한 번 가 보고는 나머지는 전부 North Spine에서 해결하였습니니다.

학교 밖에서 해결할 경우에는 당연하다시피 식당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술값 포함해서 한 끼에 5만원 넘게 깨질 수도 있고, 호커 센터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간단하게 식사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니다. 개인적으로 호커 센터는 위생상태가 영 별로라 선호하지는 않았습니니다.

### C. 기타 생활비

빨래 1SGD, 건조기 1SGD(신형 동전만 받음)이며, 에어컨 사용 시 체크인 시 받은 에어컨 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이를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 뭔가 고장이 났는지 에어컨 카드를 꽂지 않아도 에어컨이 나오는 방이 걸려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꽤 나간다고 합니다. 교통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입니다. 몇 만원 충전하고 다니면 많이 돌아다녀도 몇 주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자세히 체크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택시는 보통 Grab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여러 명이 타서 나눠 내면 멀리 나가도 몇 천원 수준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 캠퍼스에서 창이 공항까지 가면 나라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가는 만큼 5만원 정도 깨 집니다.

## 4. 학교 캠퍼스

###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치안도 좋고 길거리도 깨끗합니다. 식물들이 많아 자연 친화적인 느낌입니다. 경사져 있어서 층수도 들쭉날쭉하고 계단이 많습니다. 건물들도 깨끗하고 몇몇 심미적인 디자인의 건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다 보니 캠퍼스 주변이라고 해서 다른 곳과 딱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치안 좋고 길거리 깨끗합니다.

## 5. 언어 사용

영어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다만 싱글리시에 익숙치 않다면 알아 듣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계가 많다 보니 중국어도 어디서든 쓰일 수 있어 보입니다.

##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체크인 시간은 학교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직원이 있는 시간대에 가야 합니다. 기숙사 별로 admin office가 있으니 찾아가서 설명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키, 에어컨 카드, 우편함 키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아웃은 방 깔끔히 비우고 받은 것들 반납하면 되는데, 직원이 없어도 그냥 반납함에 넣고 나오면 되므로 딱히 시간을 엄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남녀 기숙사 구분은 딱히 없고 한 건물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남녀별로 층은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인(친구들)을 성별 구분 없이 방에 불러서 놀아도 딱히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많이 번거로운데, 화장실 출입에 방 키가 필요합니다. 세면대 물 손잡이도 한 번 누르면 얼마간 물이 나오다가 멈추는 방식이라 많이 불편합니다. 방 크기라거나 주변 시설 등은 랜덤입니다. 저는 운 좋게 넓은 방에 걸렸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동떨어진 기숙사였습니다. 식당이나 바가 붙어 있는 모던한 아파트 같은 느낌의 기숙사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침대에는 매트리스밖에 없으므로 침구류를 챙겨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얇은 침구류만 있으면 되므로 짐을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챙길 수 없다면 사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첫 날

샤워 도구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딱히 탈의실이 없고 화장실 내부에 있는 작은 샤워실에서 전부 해결을 봐야 하므로 샤워용 슬리퍼, 바구니, 그리고 옷과 수건 등을 담은 비닐 봉지 등을 준비할 것을 추천합니다. 싱가포르 규격에 맞는 어댑터와 랜선을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합니다. 기숙사에는 와이파이기가 없습니다. 식수대가 있긴 하지만 찻찻하다 싶으면 물도 주기적으로 사서 보충해야 합니다.

## 7. 학교 생활

교내에서는 기숙사에서 자고 North Spine에 가서 밥 먹고 바로 옆의 ARC에 가서 수업 듣고 한 게 거의 전부라 마땅히 학교 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버스를 필히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안내를 다 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RED, BLUE 셔틀 버스가 있습니다. RED는 반시계방향, BLUE는 시계방향으로 캠퍼스를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노선에 대부분의 기숙사와 North Spine이 있습니다. NTU GO라고 하는 앱으로 버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엄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때때로 정확히 맞으니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셔틀 버스는 모두 무료라 편리합니다. 버스간 간격 유지를 엄격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연속으로 같은 버스가 3번 온 적도 있으니... 가장 가까운 MRT(지하철)역인 Pioneer까지 갔다 돌아오는 셔틀 버스도 있습니다만 학교 밖으로 나갈 때는 보통 Public Bus 179나 199번을 이용했기에 별로 이용하진 않았습니. 두 버스 모두 Pioneer 다음으로 가까운 역인 Boon Lay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교내에서 한 바퀴 돌고 나가는 버스인데, 179번은 남쪽을, 199번은 북쪽을 돌고 나갑니다. 제 기숙사는 남쪽 끝에 있는 Hall 5여서 179를 애용했습니다.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곳으로는 Hall 2에 붙어 있는 Giant Market과 Seven Eleven, North Spine 안에 있는 Prime Supermarket이 있습니다. 보통 North Spine에서 식사하면서 Prime에서 살 거 사지만, Prime은 9시에 닫으므로 밤 늦게 사야 한다면 12시까지 영업하는 Giant에 가야 합니다.

##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오리엔테이션과 Farewell Party를 비롯하여 몇몇 Social Activities 등 교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텔레그램 방을 개설하여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 주는 등 관리 팀이 세심하게 학생들을 신경 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해당 없음.

##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아무래도 센토사 섬에 볼 거리가 많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아쿠아리움, 루지나 집라인 등 각종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해변가, 워터파크(여긴 가 보지는 않았습니.) 등이 있습니다. 번지 점프대도 있어 번지 점프와 자이언트 스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보타닉 가든, 멀라이온 동상, 마리나베이샌즈, SuperTree, 아트사이언스 뮤지엄 등을 방문하여 즐겼습니.

동물원과 River Safari, Night Safari 등도 갔습니. 다만 딱히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여긴 그다지 추천하

지 않습니다.

주말에 잠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의 휴양지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Student's Pass를 발급받지 않아서 재입국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조금 불안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할 일이 있어 가지는 않았습디만, 같이 어울린 친구들 몇이 갔다 왔는데 Student's Pass는 딱히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기 같이 가지 못 한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외에 소소하게 주중에는 친구들과 같이 시내에 나가서 맛집 탐방을 한다던지, 노래방이나 바에 간다던지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교내 식당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되지 않는 곳이 꽤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에서 먹었을 때 각자 카드 분할해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곳도 꽤 되므로, 현금을 넉넉하게 챙겨가기를 추천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저는 현금만 700\$ 사용하였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지하철 역 ATM 등에서 수수료 몇 천원으로 쉽게 뽑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티에서 학생증을 받으면 그걸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결제시 카드가 교통카드처럼 찍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삽입이나 긁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면 결제할 때마다 말 해야 하는데 이게 꽤 번거롭습니다. 한국에서 카드를 챙겨갈 때 탭 기능이 있는 카드를 챙겨가기를 추천드립니다.

### 12. 파견 소감

정말 얻은 게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우선 언어적인 측면에서 한 번도 외국어만 사용되는 환경에서 몇 주 이상 살아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 값진 경험이었고, 영어로 원어민이나 다른 외국인들과 대화하는 데 있어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이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 13. 사진 첨부

